

‘광주의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

30일 추진위 발대식…민관정 역량 결집 ‘국가 관리’ 명품 공원으로

광주시, 주거단지 어우러진 ‘녹색 허브’ 조성 생태도시 입지 굳히기

광주시가 도심의 허파인 중앙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

〈관련기사 3면〉

단순한 균형공원을 넘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명품 공원으로 격상시키고, 그 안에 어우러지는 대규모 주거 단지까지 조성을 본격화하며 ‘생태도시 그랜드슬램’ 달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3시 서구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 원회(위원장 윤봉식)’ 발대식과 포럼’이 열린다.

광주시와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과 전문가 30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공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으로, 지정 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서울 용산공원 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지정을 이끌어낸 사례는 전무하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자연공원, 무등산 국립공원과 더불어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가 ‘국내 1호’ 도전에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규제 완화가 있다.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 중인 중앙공원(1·2지구)은 전체 면적이 약 302만㎡에 달하며, 실질적인 공원 조성 면

적을 감안해도 약 279만㎡로 법적 기준을 넘어야 충족한다.

면적 요건 탓에 난항을 겪는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공원과 조화를 이를 주거 시설 조성도 활기를 띠고 있다. 공원 개발과 맞물려 진행 중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진행 중인 해당 단지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 비전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와 입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어울림 숲과 도시정원센터, 힐링캠핑장 등 공원 내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태 숲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아파트 건립을 넘어 공원이라는 거대한 생태축과 호흡하는 주거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을 통해 중앙공원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허브’ 이자 시민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확정했다. 특히 인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5·18 사적지 등을 연계해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중앙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중앙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성 공사가 한창인 중앙공원 1지구 현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와대, 광주·전남 통합 뒷받침할 범정부 TF 구성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장 맡아

지방분권 강화 강력 드라이브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를 아우른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관련기사 2면〉

이재명 대통령의 ‘5급3특 체제’(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구상을 조기에 실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통합에 기장 적극적인 광주·전남에 주동력을 실어주려는 정책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권한과 혜택을 부여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지휘봉을 잡는다. 실무 총괄은 류덕현 청와대 재

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조율한다.

여기에 흥의표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등 5개 핵심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실행력을 담보했다. 류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TF’도 별도로 가동된다.

TF 출범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후속 조치다.

김 총리는 통합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보장,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을 약속했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고 통합 인센티브를 구체화할 세부 이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지역 정가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법을 두고 후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라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기구까지 띠운 만큼, 통합 논의가 물을 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제외 32개 대학서 선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의 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선발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휴학하거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끊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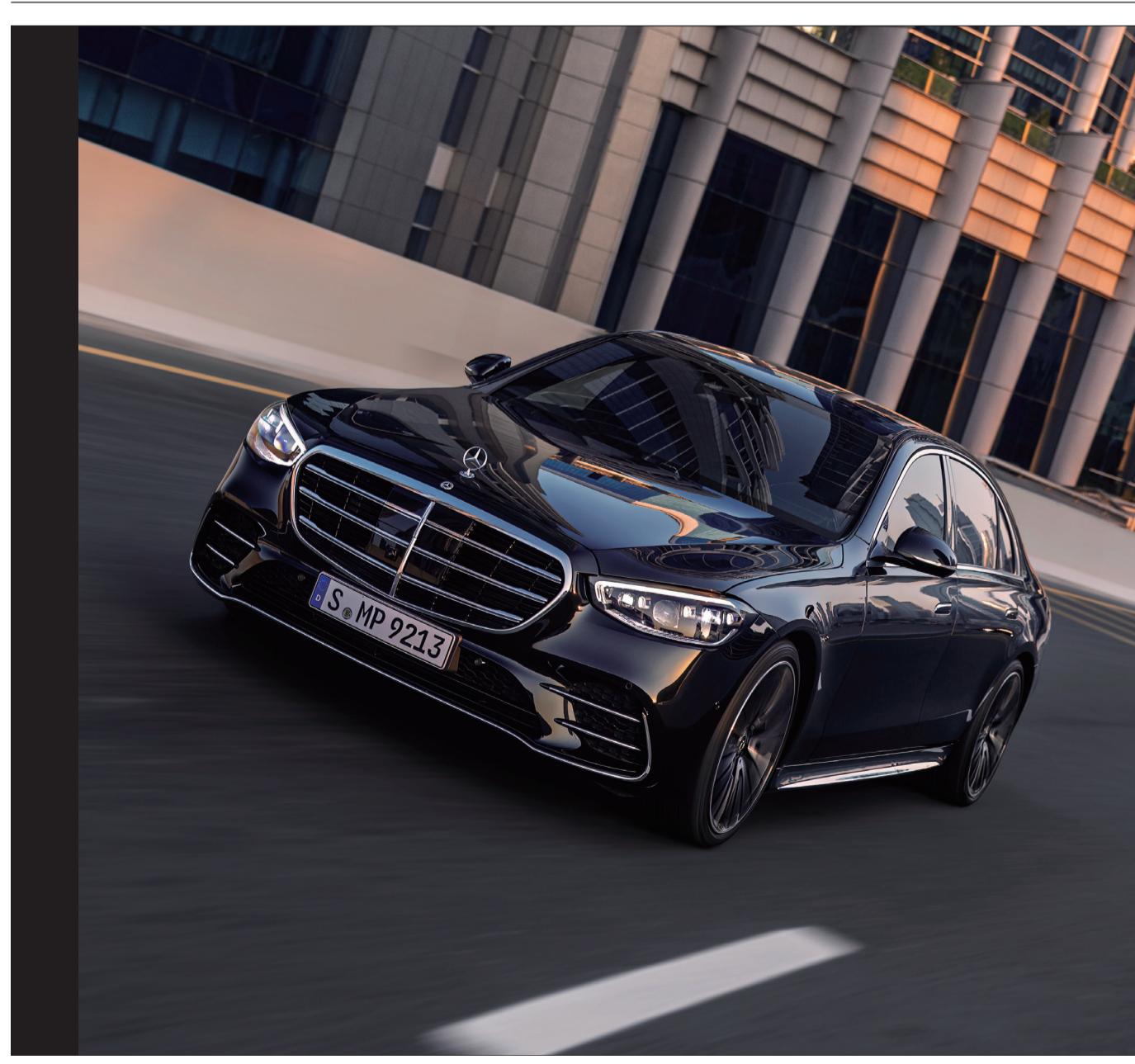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을 3회 이상 반기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부모들 아이돌봄서비스 불만 크다 ▶6면

광주FC 후아힌 캠프 - 원팀으로 한계 도전 ▶18면

김해형 작가 ‘핸드메이드 라이프’ ▶22면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종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4MATIC · 배기량:2989, 공차중량:2145, 자동9단, 복합연비:13.0(도심연비:11.3, 고속도로연비:15.9),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8

· S 45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90, 자동9단, 복합연비:10.0(도심연비:8.8, 고속도로연비:12.1),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S 450 4MATIC L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65, 자동9단, 복합연비:9.9(도심연비:8.6, 고속도로연비:12.1),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2

· S 50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105, 자동9단, 복합연비:9.7(도심연비:8.4, 고속도로연비:11.7),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7

· S 580 4MATIC · 배기량:3982, 공차중량:2150, 자동9단, 복합연비:8.6(도심연비:7.3, 고속도로연비:10.9), 등급:5, 복합CO2 배출량:20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